

본지 창간 19주년 “교회와 세상 잇는 다리 될 것”

남가주 교계 원로 및 교회 목회자들 축하 및 격려 위브릿지 교회 매칭 감사예배로 결연 후원 시작

미주 기독일보 창간 19주년 기념 및 위브릿지 교회 매칭 감사예배가 지난 24일 오전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교계 원로들과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본지의 창간 19주년을 축하했으며, 미주 한인 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독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예배에 참석한 위브릿지 참여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남가주 지역 교회에서 보내준 사랑과 격려에 감사를 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위브릿지는 본사 주관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다. 교회간 협력을 도모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회간 결연을 통해 남가주 지역 49개 교회가 올해 1월부터 매월 500달러씩 3년간 정기후원을 받게 된다.



미주 기독일보 창간 19주년 및 위브릿지 교회 매칭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미주 기독일보의 발전과 위브릿지 지역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고 있다. ©기독일보

본지 이인규 사장은 “기독일보 창간 19주년과 위브릿지 매칭 감사예배로 함께 자리해 주신 귀한 목사님들과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며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합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인규 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모습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 같다”며 “미주 기독일보는 교회와 세상을 이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며, 남가주에서 시작된 사랑 나눔의 운동이 미주 전역으로 퍼져나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감사예배에서 축사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독일보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기독언론을 10년 이상 경영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독일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문의 질이 향상되고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신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문서 선교를 감당해온 이인규 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운 마음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美 FDA “동네 약국·편의점서 낙태약 구입 가능”

미국에서 병원뿐 아니라 약국을 통해서도 먹는 낙태약 구입이 가능해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일 먹는 낙태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동네 약국이나 편의점·윌그린 등 대형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낙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판매해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낙태가 필요한 환자들은 앞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

진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는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내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먹는 임신중절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번 조치로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됐으나, 얼마나 많은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낙태를 반대해 온 인류행동연합(Human Coalition Action)의 법률 자문을 맡은 첼시 유먼(Chelsey Youman)은 “이러한 움직임은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먼은 “이것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키

는 단체의 비양심적 행위다. 의사가 낙태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안전 요건을 없애고 이웃 약국을 낙태 공급자로 만들어,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해 낙태약을 조제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없이 집에서 낙태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DA에 따르면, 심한 출혈은 미페프리스톤 복용의 부작용 중 하나다. 유먼은 “바이든 행정부의 FDA가 여성의 안전보다 낙태약에 대한 접근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최대의 낙태 서비스 제공업

체인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이 낙태약은 조기 임신을 종료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9주 이하 임신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미국가족계획연맹의 알렉시스 맥길 존슨(Alexis McGill Johnson) 회장은 성명에서 “우편을 통해 낙태 처방약을 받거나 다른 처방전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으려는 이들에게 획기적”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수호연맹(ADF)으로 대표되는 여러 전문가들은 지난 11월, FDA가 화학적 낙태약을 승인하고 규제를 반복적으로 완화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기독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창립 50주년 JUBILEE “희년”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영 어 예 배
청 년 예 배
능력의 수요강해
새 벽 기도 회
온교우 토요일기도회
아 동 교 육 부
중 고 등 대 학 부
주 일 한 국 학 교
토 요 한 국 학 교
AWANA (K-6)
특 수 사 역 부

11AM (주일) | 새교육관 채플
1:30PM (주일) | 본당
10AM (수) | 본당
5:30AM (월-금) | 본당
6AM (토) | 본당
11AM (주일) | 교육관
11AM (주일, 7PM (금) | 교육관
1PM (주일) | 교육관
9:30-12:30AM (토) | 새교육관, 교육관
2-3:30PM (주일) | 새교육관 GYM
11AM (주일) | 소망관

주일예배
(본당 및 온라인)
1부 7:30AM
2부 9:00AM
3부 11:00AM



담임목사 박은성

남가주한인목사회, 여성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김정한 목사, 박정희 목사 신임 회장 취임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는 지난 21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5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 회장으로는 김정한 목사가, 이사장으로는 김재중 목사가 취임했다. 제13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으로는 박정희 목사가, 이사장으로는 서사라 목사가 취임했다.

김정한 목사는 “반세기 넘게 미국 이민 사회에서 한인 교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목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남가주 교계와 목사회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서 취임사를 전한 박정희 목사는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남가주 한인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교계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여성목사회자들과 이웃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엘리아 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 이호우 목사(OC 교협 증경총회장), 임덕순 장로(국제하나사랑재단 대표),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축사했으며, 류당열 목사(LA카운티교협 증경회장)와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박문석 목사(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소노로우스 중창단과 테어 오위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음악분과위원장)는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정한 목사는 남가주교계연합대표 회장 신승훈 목사에게 감사패를, 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진건호 목사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직전회장 이현옥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마동환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임명패를 전달했다.

이·취임 예배는 이현옥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직전회장)의 사회로 김인숙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으며 위트콤여성합창단(지휘 김상기)의 특별찬양에 이어 신승훈 목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꾼”(고전4: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이태환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상임고문)가 했다.

신승훈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청기지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 행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일꾼이 되자”며 “십자가를 전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미주디카시인협회 ‘남가주 영상문화사역’ 힘찬 출발



미주디카시인협회 설립예배 기념촬영

미주디카시인협회(대표 이동규 목사)가 설립예배를 드리고 남가주 지역 영상문화사역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21일 오전 11시 멜리데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이동규 목사의 인도로 서오석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에바다중창단의 특별찬송 후에 고귀남 목사가 행 13장 1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모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

디옥교회 구성원은 다양했다”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천대받았던 사람, 최고의 권력자 집안, 그 시대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적대자 사울 같은 이들이 함께하며 이방선교의 롤모델을 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디카시인협회가 안디옥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권면했다.

디카시인협회 이사장을 맡은 최순길 목

사도 “성경에 히브리어는 대부분이 노래”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시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단체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인사를 전한 이동규 목사는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사진과 글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봉사도하고 학업 크레딧도 제공할 방침이다”라며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했다.

이 밖에도 송인 목사, 최경일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최순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얻은 자연과 사물의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를 말한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기존의 시의 범부를 확장해,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디카시인협회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문의:213-422-8916

페트라대학교 개교 10주년 “개혁주의 신학으로 후학 양성 힘쓸 것”



페트라대학교 개교 10주년 감사예배 및 봄학기 개강예배

페트라대학교(총장 김정호 박사) 개교 10주년 감사예배 및 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15일, 조이풀교회에서 열렸다.

교학처장 김경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페트라대학교 총장 김정호 박사가 “진리와 자유”(요 8: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신관호 목사(생명의 빛 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페트라대학교는 이날 예배 후 제1기 학우회를 조직했으며 학우회장에 이사라 학우, 부회장에 김광복 학우, 총무에 이세욱 학우가 선임됐다.

김정호 박사는 “페트라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학위 과목으로는 신학 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이 있으며, 모든 과정 유학비자(F-1)가 가능하고 수시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페트라대학교 입학 및 관련 문의는 213-210-3877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1면 “본지 창간 19주년 ‘교회와 세상...’ 이어]

송 목사는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가 서로 돕는 위브릿지 사역은 매우 귀한 사역으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지역 교회가 부흥하고 연합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한 한기형 목사(미주CBS TV 기독교방송 대표)는 “양질의 기독교 정보로 미주 한인교계와 사회를 섬긴 기독교일보의 창간 19주년을 축하한다”며 “미디어 사역과 함께 교회를 연결하고 나누는 위브릿지 사역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런 운동이 미주 전역으로 번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은 “창간 19주년을 맞는 미주 기독교보는 지난 한인 이민 역사 가운데 언론사로서 선 굵은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미주 기독교보가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또 “어려운 형제를 환대하는 돕는 실질적 사역인 위브릿지를 통해 접체된 우리 교회 생태계가 회복되고 이민 사회와 교회가 더욱 밝아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서 격려사를 전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

교회)는 “창간 19주년을 맞는 기독교일보가 기독교 정론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위브릿지 사역을 통해 남가주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마5:1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민종기 목사(본지편집고문, 중현선교교회 원로목사)는 “교회가 서로 하나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이민사회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11달러?!
전기세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빨리 설치할 수록 많이 절약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OC 한인 교계 및 사회 단체, 새해 '협력' 다짐

제9차 OC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 기도회 열려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기관 및 사회 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함께 모여 기도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21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제9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용진 장로),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한인여성 목사회(회장 이경신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신용 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기관 단체장 조찬 기도회는 그동안 수년간 지속되어온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연례행사로, 미 주류 사회와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를 다짐하는 자리다.

이날 기도회에는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가주 45지구)과 영 김 연방하원의원(가주 40지구)을 비롯해 OC 한인회, OC 시민권자협회, 효사랑선교회, 한마음봉사회,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 한빛선교회, 밀알선교회, 씨드선교회, 글로벌파트너스선교회, 월남 참전전우회, OC 상공회의, 남가주 실업인협회, 캘리포니아신학교, 미주장신대, 건강정보교육센터, 아리랑 합창단 등이 참여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 한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 평화에 쓰임 받도록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민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미주한인사회와 한인회, 각 기관 및 단체의 발전을 위해 △OC 기독교계 기관과 단체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신학교와 교육단체, 선교 단체 사역의 확장을 위해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과 전진을 위해 등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에서 인사한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한인교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미국의 정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낀다.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인사한 영 김 의원은 "미국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성경말씀을 의지해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충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심상은 목사의 사회로 신원규 목사(OC교협 이사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2023년 제9차 OC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 기도회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김용진 장로의 대표 기도, 신용 회장의 성경 봉독에 이어, 한기홍 목사(OC 교협 증경회장)가 "붙들어주시는 은혜"(사4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되고, 우리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며 "하나님께서 오렌지카운티와 남가주, 미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이 땅에 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미주 한인사회가 밝아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이뤄가길 바란다"며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임재와 큰 부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추석근 목사(OC 교협 총무)의 광고와 윤성원 목사(OC 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친교 시간에는 미셸 박 스틸 의원, 영 김 의원, 조봉남 OC 한인회장,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이 축사했으며, 민경엽 목사(OC 교협 이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시니어 목회 '돌봄 복지'에서 '복지 목회'로 전환돼야"

월드미션대학교 초고령 시대 대비하는 시니어 복지목회 포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지난 18일,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는 시니어 사회 복지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현아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와 이상진 목사(한미치매센터 대표)가 주제 강연을 맡아 앞으로 교회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노인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육신적 시니어 복지목회의 방향과 실



월드미션대학교가 '초고령시대 대비 시니어 복지목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사회 복지 포럼에서 강연하는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제'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준우 교수는 시니어 복지목회의 핵심으로 '노인이 모든 세대

와 공존하면서 정보와 문화, 교육 등을 공유하며, 세대 간 공감을 실현해 내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어 시니어 목회는 '돌봄 복지'에서 '복지 목회'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니어를 돌보는 기존의 복지 개념에서 시니어가 주체자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끔 돕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사역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친화적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 강연을 펼친 이상진 목사는 한미치매센터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면서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지역 사회의 대처방안을 소개

했다. 치매는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치매 유병률은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 목사는 "지역사회가 치매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치매친화적 신앙공동체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등의 사역에 노력을 기울여 치매친화적 신앙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종교분과 조찬기도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이승우) 종교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는 지난 21일,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신년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LA총영사관 김대환 영사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상대하면 이긴다"(롬8: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바리톤 김정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전곡 독창회

2월 4일(토) 오후 6시30분, 라하브라 가스펠교회

20년 이상 유럽에서 활동했던 바리톤 김정호가 오는 2월 4일(토) 오후 6시30분, 라하브라에 소재한 가스펠교회에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전곡 독창회를 갖는다.

"연가곡"이란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완결적 구성체를 가진 가곡 모음으로, 총 24개

의 노래로 이루어진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의 대표 곡이다.

바리톤 김정호는 한국인 최초로 비엔나 슈베르트 생가에서 "겨울 나그네" 독창회를 개최했으며 정확한 독일어 발음과 뛰어난 음악적 해석으로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미주복음방송이 후원하고 가스펠교회와 주백성교회의 주최로 열린다. 김동욱 기자 문의 657-253-8561

2023 새해에는 흥부와 평안함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2.9%이자가능

2.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213.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하와이 해외 최초 한인교회, ‘독립운동’ 사적지”

국가보훈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및 주요 14곳에 표지판 설치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시작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이자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로 표지판이 최근 설치됐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하와이 내 주요 14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으로, 이곳에서 국권 회복 운동을 후원하는 한인단체, 독립군 사관 양성 기관, 민족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학교 설립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교회 설립이 이

뤄졌다. 해외 최초 한인 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물론,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윤병구(1977년 독립장), 이교담(1999년 애국장), 문포라(2019년 건국포장) 등 36명의 독립운동을 배려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한인기독교학교 터 ▲대한민국민회 총회관 터 ▲합성협회회관 터 ▲대한인동지회 회관 ▲한인기독교교회(호놀룰루, 와히아와, 힐로) ▲올리브연합감리교회 ▲오하우 묘지 ▲와이엠시에이(YMCA) 회관 ▲동지촌 숯가마 ▲한인기독교학원 칼리히 교정(캠퍼스) 터 ▲한인기독교학원 알리아올라니 교정(캠퍼스) 터 등 총 14곳의 주요 독립운동사적지에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 한인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보존하고 하와이 독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측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재원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이사, 이도규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영사, 한의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장.

립운동의 역사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향후 미주한인재단(하와이)과 함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관광객과 하와이 한글학교 학생,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선양·홍보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송경호 기자

김진홍 목사, 간첩단 수사에 “교회까지 침투했다”

“하나님의 보우하심으로 적발” 윤 대통령 안보 정책 지지

김진홍 목사가 최근 주일예배에서 ‘북한 드론과 핵과 평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오늘은 조금 시사, 안보, 국방, 통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정당 중 진보당이라는 조그마한 정당이 있다. 그 정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로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남한을 공산화하는 교육을 받고 왔다. 지난해 검찰이 제주도당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를 압수하며 지령받았던 내용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라’, ‘보수 세력을 꺾멸시켜라’, ‘민주노총을 앞세워 반미 시위를 하라’ 그런 지령들이 있었다”며 지하조직 설립 후 5년 넘게 활동한 혐의로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사건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실제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이 반미구국대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조직인데, 반미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거기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간첩망이 활동해서 반미 운동을 뒤에서 조장하고, 민주노총을 조종하고, 이게 이번에 다 드러났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인데, 조직을 적발해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의 보우하심”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 조직이 요즘 교회까지 침투했다. 김정은 정권의 남한 공산화 10계명이 있다. 그 중 네 번째가 교회에 침투하여 무너뜨리란 것이다. 그러니 북한 세력이 교회에



김진홍 목사. ©유튜브 두레김진홍

침투한 역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번에 북한에서 쏜 드론이 용산까지 왔다고 나라가 시끄러워하는데, 전 전화위복이라 생각한다. 전 정권은 북한을 달래고, 잘해 보자고 돈 보내고, 친북 인사들을 여러 요직에 포진시켜 놨는데, 임기제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친북, 주사파, 북한의 조종을 받는 단체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한 드론에 대해 6가지지를 발표했다. 첫째, 북한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둘째,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까 봐 대단히 하려야 한다. 셋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다섯째, 북한에 핵이 있든 말든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 여섯째,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은 있을 수 없다. 옳은 얘기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손이 편하게 살도록 해 줘야지, 북한의 핵 공갈에 비위 맞추고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리고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 발언해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요란하다.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무조건 만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의 전략핵을 도입하든 한국 자체로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지도자로서는 첫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나 드론에 대한 발언을 찬성한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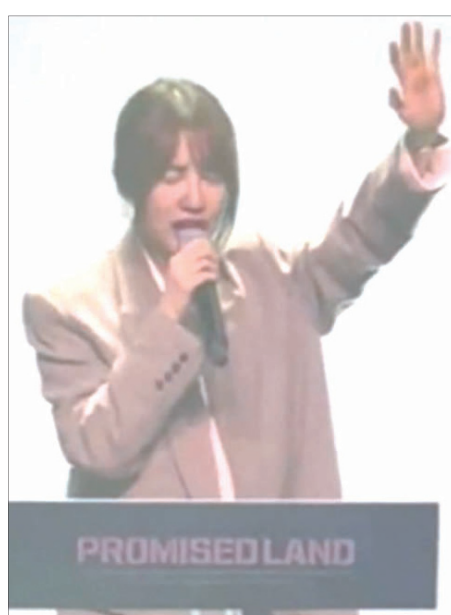
배우 윤은혜의 ‘주여 삼창’ 기도 인도 영상 화제

배우 윤은혜의 ‘기도 인도’ 영상이 화제다. 연예인으로서 대중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와 다른 모습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영상에서 윤은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격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죄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인도하며 ‘주여 3창’을 외치고 기도를 이어갔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윤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처음 본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윤은혜 응원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 이렇게 한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와 같은 중립적인 반응, “원래 저런데, 난 또 뭐라고”와 같은 시큰둥한 반응도 있었다.

통성기도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며, ‘주여’ 세 번 부른 후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이른바 ‘한국식 기도’(Korean Style Prayer)로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주여 3창’ 기도는 한국교회가 이어온 전통적인 형태의 한 기도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 전통을 따라가진 않는다.



배우 윤은혜가 한 집회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은혜는 현재 1인 연예기획사 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다. 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는 ‘지저스 아미 엔터테인먼트’의 줄임말이다.

윤은혜는 지난해 온라인 전도플랫폼 ‘들어볼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나요?’에 출연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이라며 영접기도문을 읽어주기도 했다.

이상진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기독교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Being One With Christ, Bearing Abundant Fruit
(요한복음/John 15:5)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_818-834-7000 / f_818-899-8355 www.anconnuri.com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1부 - 7:30 am
2부 - 9:30 am
3부 - 11:30 am
젊은이(HS)예배 - 2:00 pm
GM(장매우) - 9:30 am
ANCC(영어회중) - 9:30/11:30 am
주중예배
새벽기도(월-금) - 5:30 am, (토)6:00 am
금요기도 - 7:45 pm

“한국 복음주의 신학 산파 역할하셨던故 이종윤 목사님”

서울아산병원서 천국환송예배... 손봉호 교수 등 참석

18일 별세한 故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20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손봉호 장로(고신대 석좌교수), 박형용 교수(합동신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등 고인과 함께 사역한 동료들과 임원택 교수(한국복음주의신학회), 이광희 교수(평택대, 웨스터민스터 동문회장) 등 고인의 후학 및 제자들이 다수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예배에선 이승구 교수(합동신대학원대학교)의 사회로 노영상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가 기도했다. 노 목사는 “고 이종윤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분”이라고 했다.

박형용 교수는 말씀을 전하며 “성도는 죽음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라며 “죽음은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관문”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며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를 맡으시고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고 이종윤 목사님은 노영상 목사의 기도처럼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하나님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손봉호 교수가 고 이종윤 목사의 천국환송예배에서 조사를 전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예배 후 ‘추모의 시간’에서 조사를 전한 손봉호 교수는 고 이종윤 목사와의 인연과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며 “신학교에서 일을 척척 잘 해내서 주변사람들이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 “할렐루야교회를 개척할 때는 내가 사역하던 교회하고도 제법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의 교회 개척에 대해 선배인 내게 허락(교회의 위치가 가깝다고 생각해서)을 받으려온 신사”라고 했다.

손 교수는 이어 “훌륭한 설교자이자 신사적인 목회자”라며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신사적인 목회를 이어받자. 지금은 그의 삶을 가능한 만큼 닮으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했다.

이상규 교수(백석대 석좌교수)의 조사는

이 교수의 사정으로 인한 불참으로 다른 이가 대독했다. 이 교수는 “가정에서는 충실한 가장이며,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목회자로 일생을 헌한 목자로 살았다”며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스승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에게 기대어 안식을 얻고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갔다”라고 했다.

그는 “교회 쇠신과 ‘한교단 다체제’를 주장하며 장로교의 연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공산권 선교, 탈북자 인권 등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년기에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라고 했다. 고 이종윤 목사님은 하나님을 평생 그리워했는데, 하

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다.

이광희 교수(평택대, 웨스터민스터 동문회장)는 “고 이종윤 목사님은 웨스터민스터에서는 동문으로 모교를 정말 사랑하셨다”라며 “웨스터민스터의 전통은 본질에는 강한 경향이 있지만 상황에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목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며 “고 이종윤 목사님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지만 ‘상황은 다양’하여 서로 ‘존중하며 연합’할 것을 강조했다. 교단의 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창의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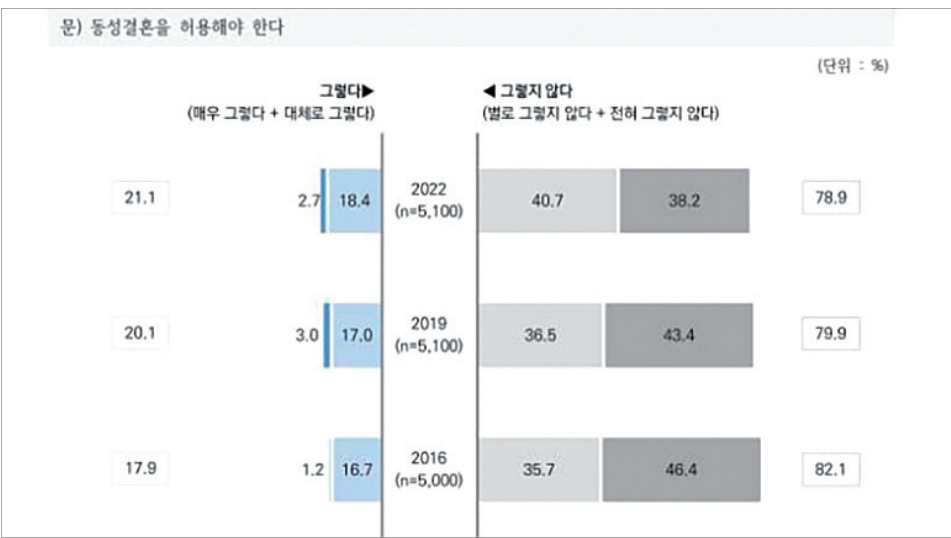
임원택 교수(백석대,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신학자의 삶까지 사신 분”이라며 “복음주의신학회의 회칙을 제정하신 분으로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산파 역할을 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조사를 쓰며 고민하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칼빈’이 떠올랐다. 칼빈이 제네바 시절의 4분의 3은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칼빈과 비슷한 삶을 사신 고 이종윤 목사님도 칼빈처럼 인내하셨다.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유족 대표로 홍순복 사모(고 이종윤 목사의 처)는 “많은 일을 하다가 가셔서, 남겨진 일들이 많다”며 “그가 남긴 많은 양의 설교 원고와 메모의 정리작업을 살아 있을 동안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홍 사모는 “교계와 학계가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진 기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 ‘동성결혼 허용 안 돼’



연도별 설문 결과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동성결혼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조사는 1996

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은 21.1%로, 매우 그렇다 2.7%와 대체로 그렇다 18.4%였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78.9%로, 별로 그

낙태 ‘안 된다’는 48.9%, ‘된다’는 51.1%

렇지 않다 40.7%와 전혀 그렇지 않다 38.2%였다.

해당 조사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79.9%, 2016년 82.1%로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는 비율은 2019년 20.1%, 2016년 17.9%였다.

또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48.9%로, ‘그렇지 않다’의 51.1%보다 적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50%로 똑같았다. ‘그렇다’는 2016

년 73.3%, 2013년 75.8%, 2008년 52.1%, 2006년 56.9%, 1996년 45.3% 등 들쭉날쭉했다.

이와 함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는 첫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 묻는 결과 ‘그렇다’가 67.3%, ‘그렇지 않다’가 32.7%였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그렇다’는 42.4%, ‘그렇지 않다’는 57.6%였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패션오브크라이스트 속편 ‘부활’, 올봄 첫 촬영

영화 ‘브레이브하트’ 작가가 쓴 대본 초안 완성돼

2004년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의 속편이 올봄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영화 ‘부활’(Resurrec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초점을 둔 전편과 달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3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제작은 할리우드 배우 겸 전편의 감독인 멜 깁슨(Mel Gibson)이 맡는다.

영화 전문 웹사이트 월드오브필름은 “깁슨이 ‘브레이브하트’(Braveheart) 시나리오 작가 랜달 월리스(Randall Wallace)와 함께 대본 작업을 열심히 해왔다”면서 “이미 6개의 초안이 나와있다”라고 보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역에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짐 카비젤(Jim Caviezel)이, 마리아 역은 마리아 모르겐스틴(Maia Morgenstern), 요한 역은 크리스토프 지브코프(Christo Jivkov), 베드로 역은 프란체스코 드 비토(Francesco De Vito)가 맡는다.

멜 깁슨은 2016년 그렉 로리(하비스트크

리스천펠로십) 목사가 이끄는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전도집회 연설에서 수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 후 2020년, 카비젤은 브라이트바트 뉴스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부활’의 3번째 초안을 받았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화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카비젤은 예수를 연기한 후, 정치적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를 묻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방어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것과 싸워야 했다”라며 “영화는 대흥행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 후) 내가 작품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일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스튜디오 명단에 없었다. 증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 일은 나의 직업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인 카비젤은 자신의 믿음(영화) 업계와 할리우드 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념을 고수했다”라고 밝혔다.

깁슨은 2016년 ‘더 레이트 쇼’에 출연 당시, 속편에는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인물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배우 짐 카비젤(왼쪽)과 감독인 멜 깁슨. ©20세기 폭스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깁슨은 이 영화가 “단지 사건에 대한 연대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지루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거 읽어봤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변부에서 일어난 다른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이 큰 주제”라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는 하나의 사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라며 “주변 일들과 함께 그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그 의미를 밝혀주는 대단한 사건”이

라고 강조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업계의 소외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3000만 달러를 들여 6억1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전 세계에서 거뒀다. 이 기록은 당시 북미에서 R등급(18세 이상)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수익이었다.

그러나 영화는 이듬해 열린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다. 강혜진 기자

美 민주당원 3명 중 2명 “임신후기 낙태 금지해야”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인의 약 절반이 임신 첫 3개월 이후 낙태에 대한 제한을 지지했고, 3명 중 2명 이상은 임신 후기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8일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 폴(Marist Poll)이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원 응답자의 32%는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과반수는 낙태를 제한할 것을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19%는 낙태가 “임신 첫 6개월 동안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답했고, 거의 절반(49%)은 낙태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이어 “임신 첫 3개월 동안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29%, “강간·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3%를 차지했다. 또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가 3%,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4%에 그

쳤다.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 중 4%만이 “임신 기간 동안 언제든지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42%는 낙태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성인 전체 표본 중 21%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반면, 10%는 “임신 첫 6개월 이후 낙태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원의 69%는 더욱 광범위한 낙태 제한을 지지했다.

이번 자료는 미국인 등록 유권자 885명을 포함한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전체 표본의 오차 범위는 ±3.5%p, 유권자의 오차 범위는 ±3.8%p다.

조사에서 미국인의 대다수는 낙태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지했지만, 임신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61% 대 39%로 반대보다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을 위한 행진’ 캠페인에 참가한 미국인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바바라 카르발류 마리스트폴 이사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2022년 미국 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기본권

으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했다.

카르발류는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낙태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의 돕스 판결에 대한 1년간의 논쟁적인 공개 토론 끝에 나온 결과는 지난 1월에 실시된 콜럼버스기사단-마리스트폴의 결론과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지난 11일 표결 끝에 ‘낙태 생존자 보호법’(하원 결의안 26호)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자에게 생존한 상태로 나온 태아의 생명을 구할 것을 의무화하며, 태아를 고의적으로 죽일 시 처벌한다. 또 같은 날 하원은 낙태에 반대하는 단체나 교회 등을 상대로 한 폭력과 기물 파손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원을 통과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美 쇼핑몰서 ‘예수구원’ 티셔츠 착용 거리설교자 퇴거 위협 받아



워싱턴D.C. 거리 설교자 폴 쇼로. ©페이스북 캡처

미국 블루밍턴에 소재한 몰 오브 아메리카(Mall of America)에서 ‘예수 구원’을 선포하는 티셔츠를 입은 미네소타의 한 거리 설교자가 최근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퇴거 위협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가 착용한 티셔츠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Jesus is the only way)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카메코 톨즈가 녹화하고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쇼핑몰 경비원은 폴 쇼로(Paul Shoro)로 확인된 설교자에게 “예수님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쇼로는 자신의 티셔츠가 종교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이라고 경비원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경비원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셔츠를 벗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쇼로는 “티셔츠를 입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그가 가진 유일한 선택은 문제가 되는 티셔츠를 벗거나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쇼로가 셔츠가 왜 불쾌하냐고 계속 묻자 경비원은 “여기서 쇼핑하려면 그 셔츠를 벗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후 킴덤 비즈니스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1월 7일 만남 몇 주 전 쇼핑몰에서 소책자를 나눠주고 증거했으며 경비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끝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쇼로는 전도지를 나눠준 일로 인해 24시간 동안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보안요원이 그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하던 날 그는 그들에게 “차라리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께서 결국 그를 대신해 개입할 경찰을 보내셨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비원에게 말한 후, 그는 셔츠를 입은 채 쇼핑몰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은 그 이후 온라인에 퍼졌고 생츄어리의 제이 하이즈립 목사는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저스 세이브’ 셔츠를 입은 남자는 그 옷을 벗거나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라고 트위터에 통해 전했다. 이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자신 지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에 ‘쓴소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지지하지 않는 복음주의 운동가들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지난 2020년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6일 리얼 아메리카의 ‘워터 쿨러 워드 데이비드 브로디’(Water Cooler with David Brody)에 출연한 트럼프에게 진행자는 “당신을 지지했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 중 일부는, 로버트 제프리스처럼 아직 당신을 지지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그것은 충성스럽지 않다는 신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싸워 온 무언가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기존의 낙태 합법화 판례를 뒤집었을 때 복음주의자들과 낙태 반대운동가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는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후 생긴 공석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앉힌 것을 포함해, 임기 중 총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트럼프는 복음주의자들과 낙태 반대운동가들이 작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반대 후보들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이라며 “그들이 당시 훨씬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실망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백악관 제공

트럼프의 발언은 2022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예상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확보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었다.

2024년 대선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주요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최근 공화당 예비 유권자들을 상대로 트럼프와 가상의 경쟁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했다.

2022년 중간선거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로만 구성된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예비 유권자들 중 44.3%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대적인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한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주지사가 30.5%로 2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모든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중간선거 이전 수집한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더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

LA 백송교회 롱비치 새성전 입당예배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The New Church Dedication Service

2023.2.5 (Sun) 4pm

< LA백송교회 새성전 입당기념 >



이순희 Praise 콘서트



Victoria Lee Praise Concert

2023. 2.4.(Sat)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16-17차 LA 성령 컨퍼런스

강사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섬 세계선교센터 회장복음과 내적치유,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영혼을 살리는 찬양>1,2,3 저자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백송교회 사역자



김미리 목사



박진호 목사



김지환 목사



원미현 목사



차유미 목사

16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6th. 2023.2.6 (Mon) ~ 10 (Fri) 7:30pm

17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7th. 2023.2.13(Mon)~21(Tue) 7:30pm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el. 562-606-2345 , 424-445-8070



2022년 1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장면. ©아리랑뉴스 유튜브 보도 캡처

북한,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국 올해 1위

글로벌크리스천리피프(Global Christian Relief, 구 오픈도어 USA)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에 다시 올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7일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WWL)를 발표했다. 1993년부터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받는 박해와 차별 지수를 기준으로 세계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북한은 지난해 1위를 차지한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에 올랐다. 그전까지 북한은 20년 연속 이 부문에서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상위 10개국에는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 선정됐다.

GCR은 보고서 결과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anti-reactionary thought law)을 증가하는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 법은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 종교, 이념 등 공산주의 체제 유지에 반하는 요소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리사 피어스 GCR 임시 최고경영자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성경을 포함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어떠한 인쇄물을 가진 사람도 박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라며 “(북한이) 실제로 교회에게 이미 자행한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티머시 조(Timothy Cho) 씨의 말을 인용해 “기독교인은 항상 체제 공격의 최전방에 놓여 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북한에는 오직 하나의 신 - 깁시 일가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CR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3억6천만 명 이상이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단체는 지난해 기독교인 박해가 “거의 30년 전 월드와치리스트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국제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International)는 미국 지부를 분리하며, 이름을 ‘글로벌크리스천리피프’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김유진 기자

“브라질 대선 불복 시위에 복음주의·가톨릭 신자 다수”



지난 1월 8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수도 브라질리아를 습격했다. ©BBC 보도화면 캡처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봉기에 비유되는 폭동의 여파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행정부는 정부 청사에 침입한 약 1,800명을 구금했다.

미국 처치리더스닷컴(churchleaders.com)은 “브라질 통신사 아젠시아 푸블리카(Agência Pública)가 구금된 시위대 1,398명의 정부 노동 기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적어도 4명의 복음주의 목사가 있었다. 이는 폭도들 사이에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수백 개의 기독교 단체, 특히 네오-오순절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단체도 쿠데타 시도에 참여했거나 신자들을 동원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수많은 동영상에는 폭도들이 기도하고, 기독교 구호를 외치고, 수도 건물을 습격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화제가 된 영상 중 하나는 상원 회의실에 모인 한 무리에 속한 남성이 “브라질은 주 예수님의 것이다! 상원은 우리 교회이다! 상원은 하나님 백성의 교회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브라질의 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프리실라 도스 레이스 히베이루(Priscilla dos Reis Ribeiro)는 “그 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그룹은 4년 동안 보우소나루의 파시스트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왔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고 방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히베이루에 따르면, 그러한 두려움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군사 정권이라고 믿고 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그들과 그들의 교회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

아틀라스/인텔(Atlas/Intel)이 1월 8일과 9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복음주의자들의 64%가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1%가 수도 침공을 지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 중 18%가 지지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복음주의자의 28%만이 룰라의 선거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다.

처치리더스닷컴은 “이러한 음모는 브라질 대선 개표기에 대한 보우소나루의 불신과 룰라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속적인 위협을 반영한다”고 했다. 브라질 하원의원의 20%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이 룰라 행정부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복음주의 불복의 일부다.

그 회원 중 한 명은 브라질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이자 정치인이며, 보우소나루의 강력한 동맹자인 마르코 펠리시아노(Marco Feliciano) 하원의원이다. 펠리시아노 의원은 RNS와 인터뷰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함께했던 신중한 기독교인인 우리는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유대-기독교 관습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 재산에 대한 존중, 더 중요한 전통적인 가족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룰라와 가까운 이들은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소련에서 낳아진 기독교인들”이라며 의회의 복음주의 불복이 룰라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했다.

강혜진 기자

West Hill Church (웨스트힐장로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Omyeong-dam's schedule and contact info.

Eunhye-wa-pyeonggang Church (은혜와평강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Kwak-dam's schedule and contact info.

Ju-an-e Church (주안에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Choi-hyeok's schedule and contact info.

Cheonghyun-seon Church (충현선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Guokwon-dam's schedule and contact info.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Godina Church (가디나장로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Shin-tae-seop's schedule and contact info.

Godina Sun Church (가디나선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Lee-ho-min's schedule and contact info.

Daehong Church (대홍장로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jeong-hyun's schedule and contact info.

Dolloroso Church (둘로스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Seo-bo-cheon's schedule and contact info.

Eunhye Church (은혜로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kyeong-hwan's schedule and contact info.

Cornestone Church (코너스톤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Lee-jong-yong's schedule and contact info.

Torrence Jo Church (토런스 조은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yu-jun's schedule and contact info.

Torrence Jeil Church (토런스제일장로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Go-hyeon's schedule and contact info.

Godailya (기독교일보) advertisement with subscription info and contact details.

Seritoseon Church (세리토스선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Bang-sang-yong's schedule and contact info.

Namgaju-dongsin Church (남가주동신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Baek-woo's schedule and contact info.

Thanksgiving Church (감사한인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Gubong-woo's schedule and contact info.

Nulpur-seon Church (늘푸른선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An-taeng-hun's schedule and contact info.

Jesus Light Church (주님의빛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Joo-heo's schedule and contact info.

Laguna Hills Church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Rim-hyeon's schedule and contact info.

Dawuni Church (다우니제일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Jeong-yehwan's schedule and contact info.

Elbainonuri Church (엘바인온누리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Park-sin-yong's schedule and contact info.

Beotel Church (베델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han-yo's schedule and contact info.

Eunhyehan Church (은혜한인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Han-gi-dam's schedule and contact info.

Orenjicounty Church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Nam-seung's schedule and contact info.

Godailya (기독교일보) advertisement with subscription info and contact details.

Hamgweon Church (함께 걷는교회) advertisement with Pastor Park-hoon's schedule and contact info.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87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튀르키예(터키)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2)”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지금 터키에 와 있다. 실크 웨이브 미션(SWM)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2007년 시작되었던 “연합 중보기도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는다. 수많은 선교사가 사역을 함에도 터키 현지의 선교는 힘을 잃었고, 터키 그리스도인의 수가 불과 5, 6천 명 정도로 추산되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연합기도운동만이 살 길을 깨달아 마치 미스바의 기도처럼 대 회개와 각성의 연합기도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후 매년 터키 안탈리아에서부터 앙카라, 갑바도기아 이즈밀 등 곳곳에서 일어났던 세계 연합기도운동의 결과 터키 현지인 교회들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들이 추천한 교회 개척자들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운동으로 사역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개척운동은 2011년 어느 날 아랍권 전역에서 민주화와 내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들었고 그들 사이에 복음의 물결이 스며들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각지에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다. 여러 선교단체도 저마다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터키 안에서의 사역은 실로 선교 부흥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SWM에서는 연합중보기도 운동의 리더십을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넘겨 주었고, 곧바로 교회 개척운동에 전념을 다하였다. 현재 터키 전역 60여 곳의 교회 개척을 직접 지원하고, 교회 개척지도자들을 발굴하여 훈련하고, 후원하는 ‘교회 개척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겨울 그 교회 중 16곳 이상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개척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여러 명의 각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선교 코디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섬긴다. 현지 교회 목사들도 교회개척운동에 함께 동역하면서 SWM의 교회 개척운동은 현지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하며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주와 한국에서의 SWM의 후원교회와 이사회회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후방의 교회들은 현지 개척 교회를 지원하면서 후원비와 함께 교회는 일 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교회의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 적합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비전은 터키 전역 81개 주안에 교회가 없는 주를 찾아 계속해서 교회 개척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운동을 위해 세계 난민들을 터키 안으로 모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난민들은 비참한 환경과 극빈을 경험하지만, 터키 복음화와 더 나아가서 중동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초석으로 다듬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필자는 그 사역의 연속으로 이번 2주간 터키 여러 지역을 차로 약 3,700km의 거리를 달리며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교회 개척의 방향을 도모하게 된다. 앞으로 앙카라를 시작하여 16곳의 터키 동남부와 중서부 지역을 밟으면서 많은 현지 영혼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한다.

SWM의 본부 리더십들과 운영 이사회의 결정으로 필자를 이번 겨울 선교 교회 개척지원 사역에 파송하였다. 그렇게 결정하여 필자를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본부와 운영 이사회의 파송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필자와 2주간 동행하면서 현지의 동역자로 함께 하실 터키의 김 선교사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의 연합과 동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 열매를 바라보면서 선교단체와 그들이 파송한 장기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 후방 지역교회들의 선교 연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앞으로를 기대해 본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스코틀랜드의 맥베스(Macbeth)는 뛰어난 용맹과 지략을 가진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인 던컨 왕의 친족이었던 맥베스는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맥베스는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맥베스와 동료 밴쿠오 장군이 돌아오는 길에 세 유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맥베스와 밴쿠오 두 사람에게 희한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맥베스가 곧 코드르 성의 영주가 될 것이며, 둘째는 맥베스가 스코틀랜드 왕이 될 것이고, 셋째 밴쿠오의 후손이 맥베스를 이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던컨 왕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그것은 맥베스를 코도르 성의 영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령들의 예언에 긴가민가했던 맥베스는 유령의 예언을 믿기 시작하며 아내에게 유령을 만난 일과 유령의 예언들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 유령들의 예언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야심만만한 그녀는 심약한 맥베스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던컨 왕을 죽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남편을 충동질했습니다.

맥베스와 성주가 된 지 얼마 안되어서 스코틀랜드 왕이 맥베스의 성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맥베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맥베스와 아내는 왕을 죽일 기회로 보았습니다. 주저하는 맥베스를 아내가 충동질해서 왕을 죽이고 마치 왕을 경호했던 두 신하가 죽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모두 맥베스가 왕을 살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왕과 함께 두 왕자가 동행했지만, 왕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맬컴 왕자등은 도망을 했습니다. 던컨 왕이 살해되자 권력 공백 상태였습니다. 왕이 죽고 왕자가 도피한 상황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맥베스였습니다. 그래서 맥베스가 (유령의 유언대로)스코틀랜드에 왕이 되었습니다.

스의 강력한 지지자요 동반자였던 그의 아내는 던컨 왕을 살해한 죄책감과 현실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마침내 죽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맥베스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녀들의 예언을 굳게 믿고 여자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잉글랜드 군대는 수도인 던시네인 부근 버어남 숲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해 위장한 채로 진군해 들어옵니다. 초병의 눈에는 마치 버어남 숲이 던시네인으로 공격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초병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초병은 맥베스에게 버어남 숲이 진격해 온다고 보고 했습니다. 마녀의 예언이 생각난 맥베스는 죽음을 대항해 싸우다 맥더프를 만나 ‘맥더프 자신은 어머니 배를 가르고 태어나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맥더프 손에 맥베스는 죽고 맬컴왕자가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맥베스>의 줄거리입니다.

<맥베스>는 마녀의 허망한 예언에 인생을 망친다는 인생의 비극을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탐욕이 속삭이는 헛된 예언에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합니다. 맥베스가 맥더프와 결투 중에 토해낸 말을 정리해 봅니다. “마녀의 모호한 거짓말과 이중의 뜻을 가진 말로 우리는 속이는 정령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둘째 <맥베스>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15)”는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삶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맥베스가 침몰해 가는 과정에 탐욕과 죄악이 얽혀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탐욕,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탐욕으로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 값으로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과 다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주인공이 악한들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맥베스>는 주인공 스스로가 악인으로 악을 행하다 벌을 받습니다. <맥베스>는 탁월한 인간 내면의 묘사로 악을 행하는 인생의 공포와 아픔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기독교교육의 리더십(CO),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2)

요한복음 7:37-5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그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 오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못 박히지 않았다면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교대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세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7下~39上)하셨습니다.

3.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혹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성경에 다윗의 촌 베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헤레헴에서 난 줄도 모르고 갈릴리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중에 쟁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종들이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에 예수를 잡으러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 예수님 잡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에 잡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하였느냐고 묻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에 점령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즉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점령 당한 이들 모두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요3:1이하)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할 수 없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하고 나섰

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본인을 불러 그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인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속단할 수 있느냐는 니고데모의 말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는 한 마디는 “너도 예수 께거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지독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신이나 기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본문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니고데모의 친구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와 요셉이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니고데모가 유황을 100근이나 가지고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게 모두 발랐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죽은 목숨을 살리고 문둥병을 나을 받고, 앓은뱅이도 나음을 입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시체격정한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휘(隱譎)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휘라는 말은 가리고 나타내기를 꺼린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되어져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생활속에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보든지 불신앙적인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지옥가기를 재촉하는 불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를 불만 불평하던 사람들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의 입장에 함께하기를 힘썼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입장을 예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신앙인의 입장에서 서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편에 선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다가 그와 함께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봅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를 붙들어 택한 백성들을 주변에서 불러들여 그 목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자들은 그 양떼를 책임지고 길러내어 하늘나라 보내기 위하여 책임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대로 한 것임을 깨달아 모세를 따르는 이들 중에 인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목자로 알아 따르는 이들은 그 결음이 신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전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내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후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은항아리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30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정사 만약유시엔 판매금지 판매금지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 칠삭모범떡

솔방 새우만두 / 떡갈비 정식 /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잠재력이란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소유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잠재력이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자신 안에 감추인 보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보배를 일깨워주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소유한 가장 큰 잠재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는 최상의 잠재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는 칭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수해 주심으로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심으로 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사 11:2).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소유한 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소유한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최근, 《요셉의 원리들(The Joseph Principles by Steven K. Scott)》이라는 책을 읽다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어떤 90세가 되신 노부인께서 프랑스에 있는 작은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위해 소유한 물건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매각한 돈이 6천불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가지 않은 물건은 모두 내다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 정리를 도와주는 분이 부엌 위쪽에 걸려 있는 아주 오래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오랫동안 여주인의 관심에도 없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살펴본 분이 그림이 조금 특별하다면서 전문가에게 그 가치를 알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림을 평가하는 전문가가는 그 그림이 4백만 달러에서 7백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결국 그 그림은 경매를 통해 2천 7백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안타깝게도 91세가 된 노부인은 그림이 팔린 지 몇 개월 후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이 노부인이 자신이 소유한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았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가

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잠재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소유한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만남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그 잠재력을 말해주는 만남입니다. 셋째, 좋은 책을 읽는 중에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는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우리는 실패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이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 안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잠재력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 안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했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좋은 성품과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미디어 금식 후기 간증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와 “선교적인 삶”이라는 한 해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2023년을 활기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다소 특이한 금식을 병행하였습니다. 어느덧 벌써, 3주가 지나갔고 이제 한 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금식을 해보니 어떠십니까? 힘든 점은 무엇이고, 유익했던 점들은 무엇입니까? 다들, 크고 작

은 간증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미디어 금식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크고 작은 간증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미디어 간증 책자에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그 일기를 요약정리 하여, 교회 행정실 이메일이나 직접 프린트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미디어 금식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금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 가까워진 미디어를 줄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어떤 집사님을 보았는데, 때마침 미디어 금식을 하고 계셨고, 간증을 들어보니 미디어 금식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새벽기도회와 미디어 금식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절제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미디어 금식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미디어 금식 핸드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바쁜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이라 미디어 금식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다. 그러나 주말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오니, 미디어 시청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자냐?” 싶기도 했지만,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일찍 잠이 든 바람에 새벽 3시에 일어났지만, 숙면을 취하고 나니, 피곤이 싹 가시고, 하루가 활기 차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바뀐 몇 가지 습관들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일찍 자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몹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3주 동안 잠을 푹 잤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보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 놓고 듣다 보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기도회 때나, 걷거나 차를 운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몰입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지금은 미디어를 하고픈 큰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절제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미디어를 잘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런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영적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절제의 능력을 갖게 된 것,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사실만으로 미디어 금식이 제게 큰 유익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은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도님들의 미디어 금식 후기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World Mission University 봄학기 신입생 모집

학위과정별 전공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 (복지선교, 코칭 전공)
-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복있는 사람

(시편 1:1)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 온라인 100% 트랙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admissions@wmu.edu | kr.wmu.edu



진유철 칼럼

정확한 원인분석과 시선을 정함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정확한 원인분석보다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남을 정죄하며 탓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옛날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당한 원인이 형들

때문이라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분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창50:19-20)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 '다리가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므로 장애에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닉은 물속에서 거의 물개 수준입니다. 온갖 스포츠를 다합니다. 결혼해서 4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6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나님은혜로 정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고생했습니다.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

만 더 큰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는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확한 원인분석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가능합니다.

원인분석을 했다면, 그 다음 나의 시선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했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와 대적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고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경찰관 훈련소 이야기입니다. 4주 훈련 후 졸업식이 있는데, 일렬로 서 있는 졸업생 개들 앞에 맛있는 고기를 던집니다. 누가 졸업하고, 누가 졸업 못하느냐는 개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고기 쳐다보고 달려들면 졸업 못하고, 끝까지 조련사를 쳐다보면 졸업한다고

합니다. 시선의 방향이 명견과 그냥 개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는 집중과 몰입을 위해서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서 아무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영화에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영화도 집에서 보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감동과 재미가 덜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C. 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어두우면 잘 들리듯이 고난이 오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혹시 우리들도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이 온다면 다른 무엇보다 시선을 점검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겜이 아닌 벤엘로 올라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박동식 칼럼

무늬 그리스도인과 가나안 성도를 품는 교회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휘튼 대학 빌리그레이엄센터 의장인 에드 스테처(Ed Stetzer)는, 미국을 네 그룹, 즉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가족이 그리스도인), "회중 그리스도인"(특별한 날에만 교회 출석),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 스테처는 그동안 통계학자들이 문화적 그리스도인과 회중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75%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들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본다. 비기독교인 25%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도해야 하지만, 중간 지대에 있는 50%를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기독교인이 75%가 되기도 하고 25%가 되기도 하니 풀어야 할 과제가 크다.

사람들은 이들 50%를 교회 내 CEO들이라 하는데, 이는 회사 CEO가 아니라 일 년에 두 번, 즉 "성탄절과 부활절에만(Christmas and Easter Only)" 출석하기에 그렇게 부른다.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간혹 교회에 가기에 교회 문화는 어느 정도 알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다. 이들 중 한 때

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성경을 읽었으나, 참으로 성경이 나를 읽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단지...종교에 불과했어요." 솔직한 고백이다.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종교생활을 해 온 것이다.

이들을 교회로 좀 더 들어오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혀 들어 본 적 없는 이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대중은 알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무늬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고백하도록 그들을 복음의 본질로 인도하는 것이지 않다.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 무게 이동은 바른 복음 전도에 있을 것이다.

이들과 다른 차원에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 바로 가나안 성도들이다. 이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잘 다니지 않는다는 현상적인 면에서만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이들도 많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변화된 바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리워드 교회 담임목사인 팀 루카스 목사는 교회에 여전히 회의적인 이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긍휼 어린 행동, 즉 "조건 없는 나눔과 온정"을 주어야 한다. 둘째, 가정을 돕는 일이다. 셋째, 소속감을 줄 수 있어

야 한다.

가나안 성도들에게는 교리를 새롭게 가르치거나 좋은 설교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교회의 변화된 모습 혹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교회가 많이 놓친 부분들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 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달리해보자는 것이다. 교회가 참다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서로의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고 개인 실존의 아픔까지도 공동체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가나안 성도도 기댈 언덕이 있지 않을까.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밖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과 '양 우리 안에 있는 늑대'를 구분한다.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 있고,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 형용모순이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밖에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에 '양 우리 안에 있는 양'과 늑대는 우리 밖에 있어야 하기에 '양 우리 밖에 있는 늑대'가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 양 우리 밖에 양은 있을 수 없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형용모순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다만 이 형용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양 우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 우리 안에 있는 늑대를 양으로 바

꿀 수 있을까.

이 과제는 안과 밖의 이분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안에 있는 양이 밖에 있는 양을 품을 수 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다. 그럴 경우 안이 세속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안의 사람이 밖으로 나가 밖에 있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양은 우리 밖의 양의 '삶과 언어'를 알아야 한다. 필자는 최근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시청하면서 MC 주영훈에게서 이런 접근법을 보고 있다. 그의 언어에는 기독교적 경건이 식상하게 만들어 내는 꾸밈 언어가 없는 듯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떠난 이들뿐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전도 아닌가.

SNS에서 본 글이다. '피자 박스는 4각형인데, 피자는 원이고, 그것을 잘라놓은 조각은 삼각형이다.' 형식이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내용과 형식이 굳이 같은 획일적 모양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성도를 담고 있는 교회가 다양성 내지 유연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가나안 성도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이 있는 교회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수고해야 한다. 새로움은 언제나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1의 수고가 따르더라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닐 것이다. 75%나 25%나 차이가 크지 않은가.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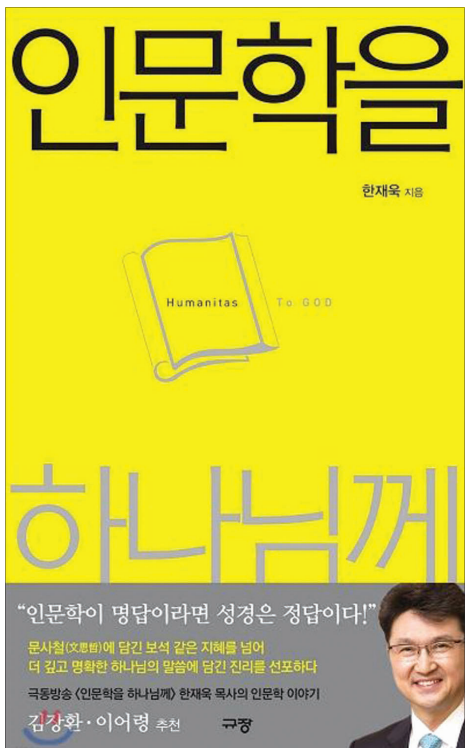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성경과 인문학

‘사람’아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규장 | 304쪽

문사철(文史哲)에 담긴
보석 같은 지혜를 넘어
더 깊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선포하다

책은 필히 책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책을 낸다는 것은 고도의 정신력과 더불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글을 쓴다 해도, 아무 것 없이 쓸 순 없습니다. 전에 읽은 책이 지금 쓰는 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작가 괴테도 “남에게 빌린 것을 빼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 모든 책은 그것이 책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도 정치서든 경제서든, 신학서나 역사서, 소설이든 뭐든 간에, 책 속에서 다른 책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을 통해 성경을 조명한 책입니다. 저자는 인문학의 여러 책을 언급하며, 성경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인문학의 한 도서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경전이기에, 엄격한 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놀라운 강점은 책 한 권에서 수많은 책을 읽은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문학 도서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에, 여러 인문학 도서들이 등

장합니다.

이 책 끝부분 ‘후주’에 기재된 도서만 61권이고, 책 속에서 언급한 자잘한 도서와 글귀까지 합치면 100권에 가까운 책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의 책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의 좋은 글귀가 즐비하여 글귀만 따로 엮거나 외워두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신앙도서라는 틀과 별개로, 이런 점때문이라도 이 책은 책값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자의 다독에 부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자 소개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하루에 한 권 이상을 읽는다고 하니, 책은 좋아하지만 고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독서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자도 처음엔 인문학 도서와 성경과의 접촉점을 확인하고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책이 좋아 많은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 인문학 도서와 성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해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무게를 실리게 한 점은 저자가 목사라는 겁니다. 신학적 기반을 통해 인문학 도서를 설명하니, 신뢰감이 들게 합니다.

한때 인문학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문학의 핵심은 ‘사람(人)’입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탐구하고, 사람의 원리를 파헤치는 분야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방법을 알고,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이념을 세우며,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내밀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신(神)’,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등장하고 끝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사람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 인문학 안에 성경을 넣는 일반적인 분류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다른 출발점의 성경과 인문학 도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책은 성경의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의 모든 책은 성경을 제하고 쓸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엔 역사와 도덕, 삶의 지혜와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든 31,173절로 된 성경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저자가 잘 포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씌 좋게 읽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많으나 깊이가 얇고, 시야를 넓게 하나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소개한 모든 책을 병렬식으로 늘어놓아, 아무리 성경적인 시각으로 인문학 도서를 얘기한다 해도 ‘자신의 지식 자랑, 독서량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역지가 너무 많습니다. 인문학 도서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주장에 모든 책과 성경 구절을 찾아서 넣으

려 하거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 ‘선택’이라는 뜻의 영어 choice에는 ‘얼음’이라는 의미의 ice가 들어가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에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107쪽).”

“별과 꽃을 보라. 별과 꽃이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 별은 비추어 주기에 별이고, 꽃은 웃어 주기에 꽃이다. ‘꽃’이라는 영어 ‘flower’를 보면 ‘낮은’이라는 의미의 ‘low’가 들어 있다. 꽃은 자신을 낮추며 웃어 줄 때 참 꽃이다(291쪽).”

하나하나만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choice에는 얼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flower에는 낮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냉철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도 꽃처럼 낮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이런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역시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책의 분량 때문인지 소개한 책은 100권에 가깝지만, 너무 짧게 넘어간다는 점은 이 책에 대한 아쉬움을 더 짚게 합니다.

가령 광고인 박용현이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보면, 14명의 저자의 23권의 도서를 320쪽에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진, 김중혁의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이란 책에선 7권의 책을 332쪽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고, 이후 나온 <질문

하는 책들>이라는 책은 9권의 책을 392쪽에 소개했습니다.

제가 굳이 쪽수를 언급한 이유는 깊이의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책 <인문학을 하나님께>에서 소개한 책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보조 수단으로 삼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잠고로 소개한 3권의 책을 읽으면 소개한 책들을 다 사서 읽게 만들지만 (실제로 저는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에서 소개한 책을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그냥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만 들 뿐, 소개한 책들을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나온 기독교 문학 도서들 중에서 이 책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건 긴 시간을 들여 읽지 않으면서 지식이 쌓이고 쉽게 포만감이 들게 할 뿐더러, 규장출판사 특유의 가독성 있는 편집으로 빠르게 읽게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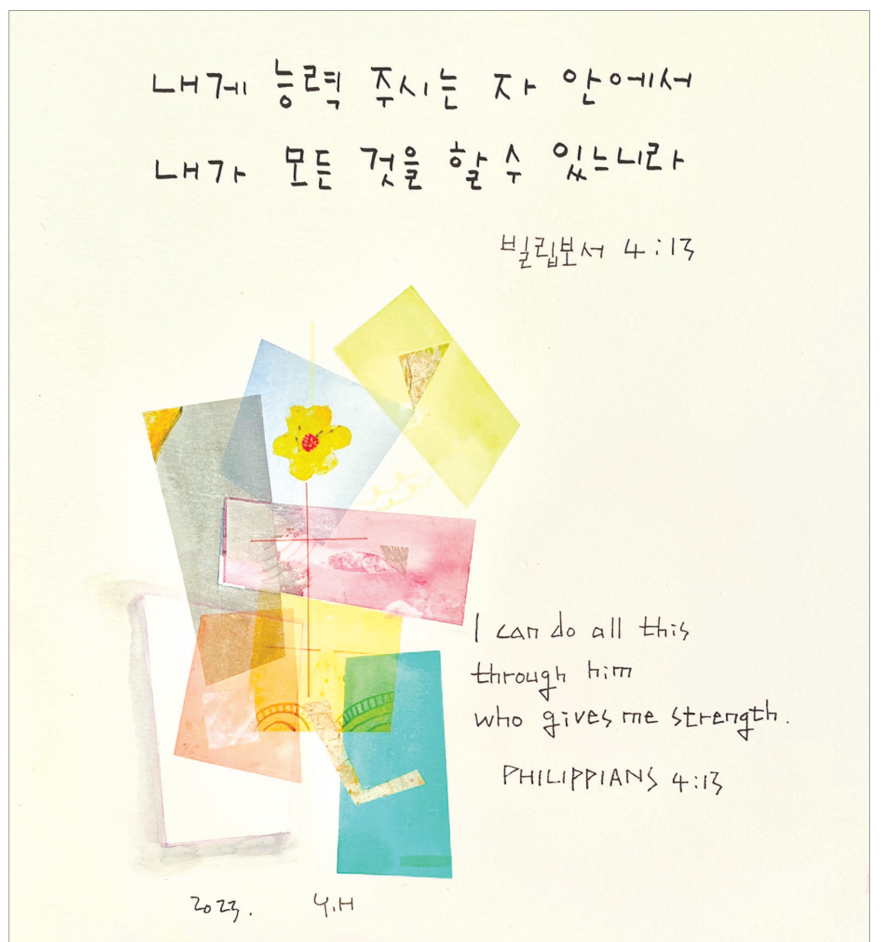
읽게 하고 구미를 당기게 한다는 점에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다’고 여기는 독자들에게도 좋을 겁니다.

2018년 4월 나온 이 책이 문학 장르가 홀대받는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오래 사랑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다음에도 이런 류의 책을 기획한다면, 이 책과 같은 편집에 더해 깊이를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이성구(서평가)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내가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니라
빌립보서 4:13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2023. 4.11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퍼!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메디칼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프레더릭 E. 처치, 피조세계에 새긴 '상형문자'

자연 통해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영광 증거한 화가

웅대한 스케일 자연 아름다움과 숭고함 묘사 자연에서 계시 찾아낼 때마다 기뻐했던 화가 청교도 바로크, 반종교개혁 예술에 대한 반응 하늘·땅·빛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 임재, 위엄

미국 낭만주의 미술가들은 종종 웅대한 스케일을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즐겨 묘사하였다. 이런 특성은 허드슨 리버스쿨의 화가 프레더릭 E. 처치(Frederic Edwin Church, 1826-1900)의 풍경화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프레더릭 E. 처치가 풍경화를 자신의 주요 장르로 삼은 것은 그의 스승 토마스 콜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처치는 토마스 콜의 지도하에 컷스킬, 이스트 햄프턴, 롱 아일랜드, 버크셔 등지로 스케치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법, 그것을 옮기는 수법과 양식을 배웠다.

이들의 작품에는 성직자나 성인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중세의 도상학적 관례를 계승하기보다 프로테스탄트 작가들답게 자연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에콰도르의 안데스>(1855)를 보면, 드넓은 산맥의 신비스런 풍광을 놓칠새라 미세한 부분까지 묘출하고 있다. 붓질은 묘사에 가려 눈에 띄지 않으며 대신 안데스산맥의 생태계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해를 중심으로 화면 우측에는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고, 좌측에는 아자수가 위치해 있다. 화면 전체에는 산골짜기에 내려앉아 있는 안개가 점차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장면을 주의 깊게 묘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세한 묘출은 존 러스킨(John Ruskin)의 회화론과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러스킨은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강조하면서 모든 형태의 암석, 모든 형태의 땅, 모든 형태의 구름은 동일한 성실함과 정확성으로 필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허드슨 리버스쿨 화가들은 존 러스킨의 저술을 애독하였는데, 그 영향의 흔적이 이 작품에서도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에콰도르의 안데스>(The Andes of Ecuador, 1855)가 주는 첫인상은 안데스 산맥의 광활하고 신비로운 모습이다. 처치는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을 쏟으면서도 전체의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개념을 꼽는다면, 그것은 '무한'의 개념이다. 처치는 자연의 웅장함과 빛의 효과, 드넓은 하늘 등을 통해 감상자에게 '무한'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러스킨은 자연이 갖는 무한함에 대한 취향이 '신의 무한함'에 대한 우리의 즐거움을 예시한다고 주장했는데, 처치의 그림은 이 이야기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다.

러스킨이 말한 '무한'을 미적인 범주로 간

주한 것은 처치의 예술에서 특히 중요했는데, 그의 웅장한 풍경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위대함 때문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상징적 진실을 암호화하려는 시도가 아님을 암시한다.

그는 말했다. "빛은 끝이 없다. 우리는 그 빛의 순수함을 기뻐하면서 그 광명의 무한함을 느낀다." 이 무한의 표현은 "보이는 것 중에서 덜 물질적이고 덜 유한하며 땅의 감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그분의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처치가 애용한 모티브인 일출과 일몰, 그리고 바다나 산 위의 빛 등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암시하는 이미지들이었다.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창조질서를 발견하기보다, 경외심이나 숭고함 등 주관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처치가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신의 창조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마음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황혼>(1860) 역시 일몰 장면을 다루고 있다. 여름 어느 날 그의 스튜디오 창밖으로 바라본 광경을 실어낸 것이다.

이 작품에서 호수나 주위의 산, 나무들은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그려졌으나 창공을 뒤덮은 노랑과 붉은 구름은 화면의 균형을 깨뜨린다. 땅의 고요는 하늘의 엄습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분위기는 급변한다. 왜 그는 이런 화면을 조성했을까? 여기에 담긴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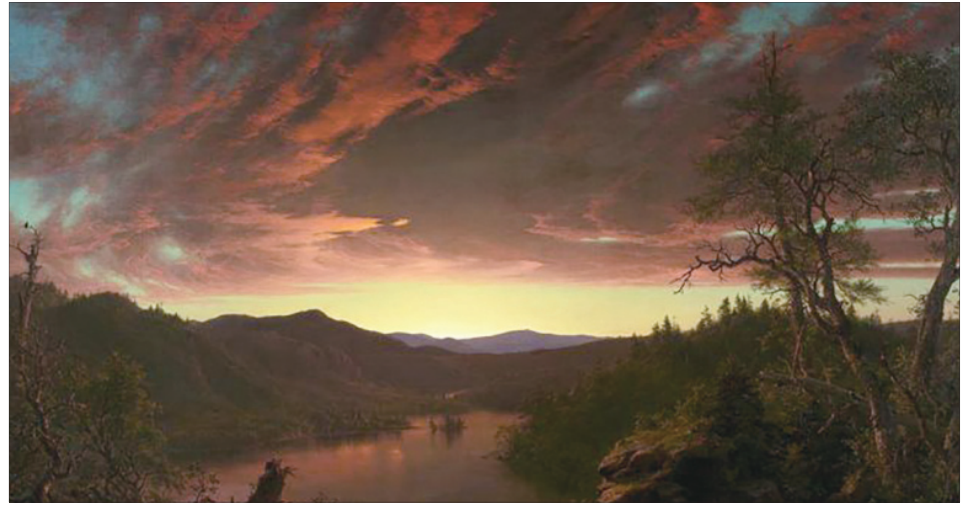
처치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친 호레이스 부시넬(Horace Bushnell, 1806-1876)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전체의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상형문자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예술가는 기록된 함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 주장은 처치의 작품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처치는 광야에서 종교적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붉게 물든 하늘의 캐노피는 하나님의 주재 아래 세상이 놓여있음을 암시하고, 하늘 아래 호수와 나무들은 어둠에서 벗어나고픈 절박한 심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는 해 너머로 빛이 부활의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깊은 밤이 곧 찾아오고 세상은 흑암의 세계로 빠져들겠지만, 곧 생명의 빛이 찾아와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보내준다.



프레더릭 처치, 에콰도르의 안데스, 캔버스에 유채, 151x223cm, 1855. 레이놀다 하우스뮤지엄 소장.



프레더릭 처치, 광야의 황혼, 캔버스의 유채, 1860, 클리브랜드 미술관.

미술평론가 헨리 터커맨(Henry Tuckerman)은 "이보다 빛의 효과가 압도적인 적도 없었다. ... 그것은 문자 그대로 천상의 불로 넘쳐나고 빛이 송고한 시편처럼 영광으로 빛난다"고 했다.

처치가 자연만을 그리다보니 빈축을 살 때도 있었다. 윌트 휘트먼(Walt Whitman)은 처치가 자연 묘사에 전념한 나머지 사회 현안 문제에 태만하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처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믿음의 사람이 진리와 생명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처럼, 그는 자연 속에서 그러한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화가는 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증거해주는 정교한 질서와 배열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생존 시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받았으나, 사망 후 그의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러던 중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헌팅턴(David Huntington)은 1966년에 처치의 예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그의 사망 후 처음으로 헌정 전시회를 기획하며 그의 존재를 알렸다.

헌팅턴은 개신교 작가와 가톨릭 작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빛의 활용에 있다면서, 처치의 작품이 "최초의 청교도 바로크의 한 부류, 정확히는 반종교개혁 예술에 대한 뒤늦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적 반응"이라고 평했다.

처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화가들이 '자연'을 대할 때 그것을 창조주의 거룩을 드러내는 처소로 파악했고, 그것의 영롱함, 생명, 반짝임을 통해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음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준다.

"세상의 사물들은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를 드리우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말했듯이, 화가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빛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찾았다.

처치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기뻐했다고 한다.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의 삶과 예술은 이에 관한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녹용,
한국 비무장 지대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인삼.



4g x 15 개입



천수단 (天壽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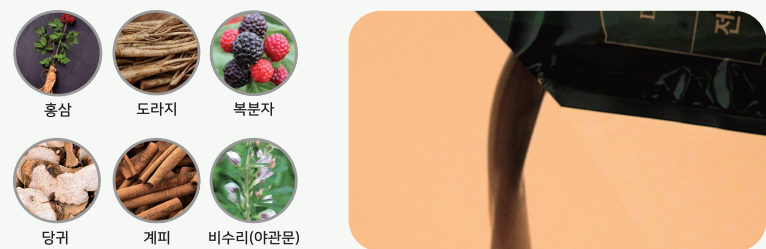
뉴질랜드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특 A급 인정 통녹용과 한국 비무장 지대 인근 청정지역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최상급 6년근 통홍삼과 9가지 전통약재 및 약용꿀 마누카허니를 배합해 소중한 분께 원기와 활력을 선물.

천수단,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부모님, 은사, 지인 등 귀한 분을 위한 선물을 찾으시는 분
- ✓ 믿고 먹을만한 녹용 제품을 찾으시는 분
- ✓ 기력 보충을 위한 건강식을 찾는 분들
- ✓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70ml x 30 포



전녹용 마일드

녹용의 분골부터 하대까지 전체를 담은 뉴질랜드산 전(全)녹용과 23가지 전통원료를 함께 담아낸 건강 한 포.

전녹용 마일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
- ✓ 원활한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 ✓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체력 저하를 느끼는 직장인
- ✓ 여행, 출장, 운동 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 ✓ 고급스러운 선물용 제품이 필요하신분!

유한양행 뉴오리진 5가지 무첨가 원칙



뉴오리진은 원료부터
간간하게 선택하여
5가지 첨가물이 없습니다.

- ✓ 無 L-아스파르트산
- ✓ 無 향료
- ✓ 無 잔탄검
- ✓ 無 산도조절제
- ✓ 無 펙틴

보다 자세한 내용은 cellreon.com
인터넷 검색창에 "셀리온"을 입력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판
매
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738-1188
부에나팍 소스몰 1층 714-523-8100
얼바인 시온마켓 정문 원편 949-800-8788